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2020년9월23일 | 선임조사역(G2) 안영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1천 km <sup>2</sup> 	<b>인구</b> 16.72백만 명 (2020 <sup>f</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중국 외교 
<b>GDP</b> 272.0억 달러 (2020 <sup>f</sup> ) 	<b>1인당GDP</b> 1,626.90 달러 (2020 <sup>f</sup> ) 	<b>통화단위</b> Riel 	<b>환율(U\$기준)</b> 4,061.15 (2019)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로 20년 간 7%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외채상환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임.
-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全)석을 차지하며 집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총선을 전후한 야당 강제 해산 및 언론사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비판적인 EU-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됨.
- 태국만 연안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에서 2020년 말부터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7. 10. 30 외교관계 재개 (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주요협정** 무역·지불협정(1964), 투자증진보호협정(1997),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7), 항공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603,846	660,426	696,530	자동차, 기호식품, 편직물
수입	261,326	314,477	335,922	의류, 잡화(신발·가방), 산업용 전기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0.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942건, 2,971,36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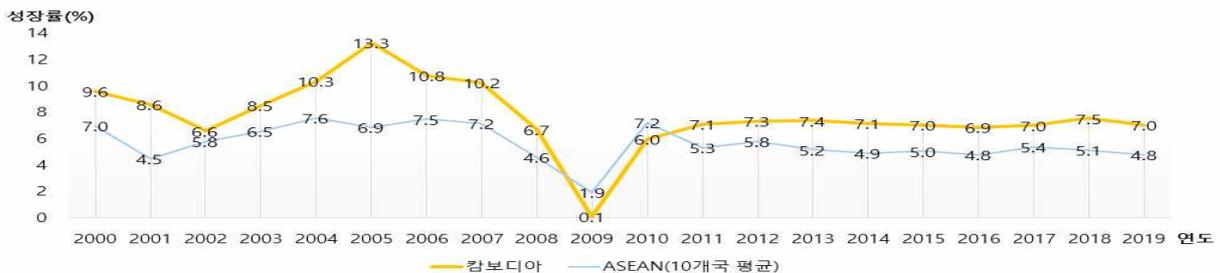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경제성장률	6.9	7.0	7.5	7.1	-1.7
소비자물가상승률	3.0	2.9	2.5	1.9	1.5
재정수지/GDP	-0.4	-1.0	0.2	0.8	-5.6

자료: IMF, EIU

###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로 20년 간 평균 7%대의 고도 경제성장세 지속

- 캄보디아는 전통산업인 농업 외에 봉제품 수출, 관광업 성장 등에 힘입어 최근 20년 간 연평균 7.7%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아세안(ASEAN)<sup>1)</sup>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5.6%)을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에는 부동산·인프라 건설 활성화, 구매력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도 성장동력으로 작용함. 2019년에도 3대 성장동력<sup>2)</sup>인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이어갔음.

캄보디아 및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 추이(2000~2019년)



자료: IMF

- **(봉제산업)**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은 캄보디아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대표산업으로,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EU, 미국 등 선진국의 무역특혜제도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음. ADB<sup>3)</sup>에 따르면, 1997~2015년 기간 중 캄보디아 수출의 약 90%가 봉제품에 집중되었으며, 자전거, 전기기기 등 수출 품목의 소폭 다변화를 이룬 2019년에도 봉제품 수출 비중이 74.3%에 달함(캄보디아 중앙은행).
- 수출시장별로는 관세 혜택 활용이 가능한 EU(31.4%) 및 미국(27.4%)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음. 한편, 2016년부터 미국이 배낭, 핸드백 등의 제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면서 여행용품이 봉제 산업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중임(2016년 수출액 1.5억 달러 → 2019년 11억 달러, ITC Trade Map).
- **(건설업)**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가속화, 외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인정(2010년) 등에 따른 부동산 투자 활황,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건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설립된 역내 기구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창설국),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문화 발전 및 안전 보장 등을 목표로 함.

2) World Bank, "Cambodia in the time of COVID-19", May 2020. 봉제산업·건설업·관광업의 2019년 GDP 성장 기여도는 71.4%(각 17.0%, 35.7%, 18.7%)에 달하며 전체 노동자 대비 고용비율은 20.1%(각 10.7%, 2.3%, 7.1%)로 집계됨.

3) ADB, "Do Women Benefit from FDI? FDI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Cambodia", March 2020

## 국내경제

- 캄보디아 국토개발부에 따르면, 2019년 건설사업 투자규모는 93.5억 달러(4,446건)로 전년 대비 79.1% 증가하였음. 한편, 2000~2019.7월 기간 중 외국 기업에 대한 건설사업 승인규모<sup>4)</sup>는 총 62억 달러(421건)이며, 중국 기업이 건설시장을 주도(28.8억 달러, 175건)하는 것으로 나타남(캄보디아 건설협회).
- 한편,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프놈펜 신공항(중국), 시아누크빌 항만 확장(일본), 국립의대 부속 병원 건설(한국) 등 주요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관광업)** 앙코르와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관광업은, 요식업·운송업 등 연관산업 고용효과 및 FDI 유치 측면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임. 세계관광협회<sup>5)</sup>는 캄보디아를 ASEAN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았음.
-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인 전년 대비 6.6% 증가한 661만 명, 관광 수익은 13% 증가한 49.2억 달러로 파악됨.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와 이동 통제에 따른 내수 감소 등으로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0%,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은 -22.6%의 대규모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초기대응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모두 약 4~9%p 수준의 경제성장률 하락<sup>6)</sup>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경제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봉제산업)** 봉제품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과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문 취소·감소로 금년 4~5월 중 전국 의류·신발 공장의 약 12%(130개/1,087개, EIU)가 영업을 중단 또는 폐업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수요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1~5월 중 봉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한 37.8억 달러에 그쳤음.
- 또한, 의류, 신발, 여행용품, 사탕수수 등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무관세 혜택(EBA)<sup>7)</sup>이 2020년 8월 12일자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對EU 수출품의 약 20%(10억 유로 상당)에 대해 통상 12%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2020년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할 전망이며, 경영난에 따른 공장 폐쇄, 실업률 상승 및 시위 빈발 등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음(EIU).
- **(건설업)**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호화 상업·주거시설 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질되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건설 부문에 대한 FDI 승인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0.2% 감소하였음. 또한, 지난 3월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 대응 예산 마련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잠정 중단키로 함에 따라 금년 총고정투자는 2.5% 감소할 전망이다.

4) 한국무역협회. 외국인 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본을 투입할 경우 내국인 투자로 집계되므로, 건설업 부문의 실제 FDI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5)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20 Annual Research", March 2020. 항공, 숙박, 요식업, 쇼핑 등 관광업과 연계된 직·간접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한 결과, 2019년 관광업이 캄보디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로 산출됨(필리핀 25.3%, 태국 19.7%).  
 6) EIU(2019년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미국(2.3% → -5.3%), EU(1.5% → -7.9%), 중국(6.1% → 1.7%)  
 7)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관세특례제도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 제공. 단, 수혜국의 인권, 노동권 등에 대한 국제협약 위반사례 적발시 중단조치가 가능함. EU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을 포함, 저개발국 48개국 앞 EBA 시행 중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내경제

- **(관광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 및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른 여행객들의 소비심리 냉각 등으로 관광수입 또한 급격히 줄어들 전망임. 지난 3월 ADB는 코로나19 여파로 캄보디아의 관광수입이 최대 856백만 달러(GDP의 3.1% 수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EIU는 관광객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3~4년(20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1~5월 중 캄보디아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59.5% 감소하였으며, 여행 제한 조치가 발효<sup>8)</sup>된 4~5월 중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98.5% 감소하였음. 한편, 금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 예정이던 ASEM 정상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지만 평균 -1.0~-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각국 봉쇄조치 완화, 교역 및 투자심리의 점진적 회복,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 전망(%)	WB	IMF	ADB	EIU	IHS	캄보디아 정부
2020	-1.0	-1.6	-4.0	-1.7	2.6	-1.9
2021	6.0	6.1	5.9	2.5	5.7	3.5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World Bank는 Baseline 시나리오 기준)

- 한편, 캄보디아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의 특성상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캄보디아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IMF에서 코로나 발생 전(2019.10월)과 후(2020.4월 또는 6월)에 전망한 ASEAN 회원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비교시, 캄보디아, 필리핀 및 태국의 전망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IMF의 ASEAN 회원국에 대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변동치 비교(%)

국가 전망일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브루 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2019.10월(a)	6.8	5.1	4.4	6.2	1.0	3.0	4.7	6.5	6.5	6.3
2020. 4월(b)	-1.6	-0.3 <sup>주)</sup>	-3.8 <sup>주)</sup>	-3.6 <sup>주)</sup>	-3.1	-7.7 <sup>주)</sup>	1.3	2.7	0.7	1.8
변동치(b-a)	-8.4	-5.4	-8.2	-9.8	-4.1	-10.7	-3.4	-3.8	-5.8	-4.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April 2020/June 2020

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2020년 6월 전망치 적용

8) 캄보디아 정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스페인·이탈리아·이란·독일·프랑스 등 코로나19 확산률이 높은 국가의 여행 목적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모든 외국인 입국자 앞 2천 달러 상당의 예치금(코로나19 진단·치료 등) 징구, 현지 의료보험(90달러) 구매 의무화 등의 여행 제한 조치는 지속 실시 중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내경제

### 국제유가 하락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 전망

- 지속적인 고도성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제고 등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달러 통용화(Dollarization)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등락 위험이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음.
- 달러 통용화는 경제 전반에 공식 화폐가 아닌 달러화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 정권(1975~1979년) 당시의 사유재산 및 화폐 철폐 조치로 인해 1980년 재도입된 리엘화(Riel)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가운데, 달러나 금 등 대체거래 수단이 각광을 받게 됨.
  - 1992년 캄보디아의 체제 안정화를 위한 UN 평화유지군 설립 과정에서 달러화가 대량 유입된 이후 수출입, 국제원조, FDI 등을 통해 유입된 달러화가 시장 내에 자리잡은 결과, 현재 전체 유동성의 80% 이상<sup>9)</sup>이 달러화로 통용되는 반면, 공식화폐인 Riel은 거스름돈이나 소액거래에 활용되는 실정임.
  -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달러 통용화의 이점과 통화주권 회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리엘화 이용률 제고 정책을 펼쳐왔음. 세금계산서의 리엘화 표시 발행 의무화(2019.4월~), 리엘화 대출비율 상향(최소 10%, ~2019.12월), 중앙은행앞 10달러 미만 소액 달러권 예치시 수수료 부과(2020.9월~) 등이 일례임.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 가격 안정에 따른 운송비 하락, 상반기 중 음식료품 가격 안정선 유지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1.9%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 추이에 따라 점차 물가가 상승하여 2021년에는 연평균 2.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20년 4월 브렌트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2001년 이후 최저치인 19.33달러까지 폭락하였으며, OPEC(원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40.5달러, 2021년 45달러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EIU).
  -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봉제산업과 관광업 부문의 대량 실업 및 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가중됨에 따라 민간소비(2019년 GDP의 68.9%) 증가율은 예년의 5~6% 수준에서 2020년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예상

- 캄보디아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 정부의 세수 현대화 전략 추진에 따른 징세 효율화, 납세 누락분 감소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조세 수입에 의존하는 점, 경상적 지출<sup>10)</sup>이 총지출의 약 65%에 달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9) 캄보디아 중앙은행. 2020년 5월 말 기준 M2 통화량의 83.6%가 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금 중 외화표시 예금 비율은 92.1%에 달함.

10) World Bank,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e in Cambodia", June 2019. 경상적 지출항목 중에서도 공공 부문 임금 지출 비중(2019년 정부예산의 30.5%)이 절대적으로 높고,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 대비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을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함.

공공 부문 임금(2016)	캄보디아	아태평양	EU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GDP 대비 비중(%)	6.7	6.6	9.9	7.0	8.7	10.4
정부지출 대비 비중(%)	30.6	27.5	25.4	25.8	31.8	28.0
정부수입 대비 비중(%)	34.5	22.9	25.3	26.8	28.2	25.9

## 국내경제

- 캄보디아 정부는 2014년부터 5개년 단위의 세수 현대화 전략(Revenue Modernization Strategy)을 시행하면서 세수기반 확대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제 시스템 자동화·효율화, 납세자 등록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세제 전면 검토 등 세수 현대화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19년 세수는 60.3억 달러 규모로 처음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이 20%를 초과(22.2%)하였음.
- 한편, IMF는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재산세율의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현재 GDP의 0.1%에 불과한 정부의 재산세 수입을 GDP의 0.6% 수준까지 제고<sup>11)</sup>할 것을 권장하였음. 또한, 향후 세수기반 강화를 위해 우대세제 전면 재검토, 자본소득세 신설(중장기) 등을 권고함.

캄보디아의 연도별 재정수지 및 조세수입 추이(GDP 대비 비중,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입	12.5	16.3	17.6	19.1	18.5	19.8	20.4	21.6
조세	10.2	11.3	12.9	15.5	15.6	15.8	16.9	18.8
재정지출	17.9	20.7	20.3	20.4	19.4	20.2	21.4	21.4
재정수지	-5.4	-4.4	-2.7	-1.3	-0.9	-0.4	-1.0	0.2

자료: IMF, "Staff Report for the Article IV Consultations", 2015~2019 및 EIU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봉제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영 부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금 우대 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6%로 확대될 전망이다.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정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하였음. 이는 글로벌 교역 침체에 따른 봉제품 수출 감소 및 내수 둔화로 관세·소비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3%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규모는 2019년 말 2.2억 달러에서 2020년 6월 말 1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21년 재정적자 비중은 정부수입 회복 추이에 따라 GDP 대비 -5.3%로 감소할 전망이나,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성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2023년까지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대에 머물 전망이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외자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GDP 대비 공적외채 비중<sup>12)</sup>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EIU는 대부분의 차입금을 중국계 국영은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외채잔액이 2021년 183억 달러(OECD는 17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요약)

예산 규모	3월 10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8~20억 달러 편성 발표 (2020년 9월 기준 15.3억 달러 편성)
주요 내용	○ 관광업·항공업에 대한 세금 감면 : 2020년 9월限
	○ 최빈층(61만 가구)앞 매월 현금 지원 : 도심 30달러, 농촌 20달러
	○ 해고 노동자에 대한 40달러 임금 보조 : 봉제업은 고용주가 30달러 추가 지급
	○ 부동산 소유권 양도세(4%) 면제 : 2021년 1월限
	○ 신용보증기금앞 2억 달러 금융 지원, 운영자금 대출이율 인하(6% → 5%) 등

11)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GDP 대비 재산세 수입 비중을 0.1%에서 0.6%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0.5%p 확대시, 경제성장률은 2.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s-Debt Sustainability Analysis", November 2019. GDP 대비 공적외채 비중(2018년)은 28.6%로 낮은 편임. 한편,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공적외채(현재가치)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0년 40%로 급증하나, 이는 경제성장률 0%, 총수출 증가율 2.5%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2020년 예상 경제지표(경제성장률 -1.7%, 총수출증가율 -29.8%) 고려시 이보다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경 상 수 지	-1,733	-1,800	-2,894	-4,063	-6,206
경상수지/GDP	-8.7	-8.1	-11.8	-15.0	-22.8
상 품 수 지	-3,846	-4,278	-5,844	-7,255	-6,009
상 품 수 출	10,273	11,224	12,963	14,987	12,972
상 품 수 입	14,119	15,502	18,806	22,242	18,981
외 환 보 유 액	8,245	11,105	13,220	16,880	13,081
총 외 채	11,204	13,016	15,336	15,858	16,426
총외채잔액/GDP	56.0	58.7	62.4	58.5	60.4
D.S.R.	5.2	3.4	4.2	10.3	15.0

자료: IMF, EIU

### 관광업 위축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축소로 경상수지 대폭 적자 우려

- 캄보디아는 최근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연평균 13%씩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원자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가운데 건설업 활황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도 증가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관광업 호조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매년 경상수지 적자 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음.

구분 (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상품수지	-38.5	-42.8	-58.4	-72.6	-60.1
서비스수지	16.0	18.6	24.0	28.1	-5.4

자료: EIU

- 2020년에는 EU·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3.4% 감소할 전망이나, 유가 등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민간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 부문 중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전년 대비 -14.7%)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 그러나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에 따른 관광수입 타격으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됨.
- 중국과의 FTA 체결,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상품수출은 2021년부터 서서히 개선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 재개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에도 GDP 대비 -20%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 유지

- 캄보디아는 매년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2019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169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음.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억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유입액 (증가율)	24.8 (35.8%)	27.9 (12.5%)	32.1 (15.2%)	37.1 (15.5%)
GDP 대비 비중(%)	12.4	12.6	13.1	13.7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June 2020 및 EIU

- 한편, 2020년에는 수출, 관광수입 등 외화수입원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감소할 전망이다<sup>13)</sup>에 따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 대비 줄어든 131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6.8개월, 단기외채잔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9년의 7.3개월, 5.7배에 비해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단기 상환불능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외채 비중은 경제규모 대비 양호한 수준

-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수반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 잔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0% 내외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외채 중 중장기채무의 비중이 81.5%(2019년)로 외채구조는 안정적인 편임.
- 2019년 이후 연간 외채원리금상환액이 20억 달러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등 수출 관련 외채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에는 수출 회복 기조에 힘입어 해당지표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2021 <sup>f</sup>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7.7	5.5	8.0	22.4	22.9	23.1
D.S.R.(%)	5.2	3.4	4.2	10.3	15.0	13.2
총외채잔액/총수출(%)	76.3	80.0	80.8	72.7	107.4	97.5

자료: OECD, EIU

- 한편, 2020년 4월 Moody's는 캄보디아가 국제기구나 주요 교역국을 통한 우호적 성격의 자금(원조자금)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재원 마련으로 외채잔액이 늘어나더라도 정부수입 대비 금융 비용 부담률이 동일신용등급(B) 국가군 대비 현저히 낮은 3%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13)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2020년 1분기 외국기업 앞 승인한 투자사업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4.1% 감소한 5.8억 달러 규모로 확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구조적취약성

### 점진적 산업다각화, 안정된 환율은 구조적 한계의 돌파구 역할

- 캄보디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선진국의 무역특혜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봉제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음.
- EIU에 따르면, GDP 대비 농업 부문의 비중은 2000년 35.9%에서 2019년 20.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은 21.9%에서 33.6%로 상승하였음.
- 또한,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폭(최근 3년, ±0.5% 이내)이 작아 외국인투자 유치에 효과적임.

### 봉제산업에 편중된 제조업의 고도화 노력 필요

- 봉제산업은 2019년 전체 수출액의 74.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표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연평균 고용인원이 94.1만 명(전체 노동자의 10.7%)에 달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여도 상당함.

2019년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	의류·신발	자전거	쌀	전기기기	고무	목재가공	자동차부품	기타	합계
비중	74.3	2.9	2.9	1.8	1.5	1.1	0.6	15.0	100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 단, 봉제품의 제1위 수입국인 EU가 캄보디아의 인권, 노동권, 정치 및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2001년부터 부여해 온 EBA 혜택 일부(봉제품 포함)를 2020년 8월 12일자로 잠정 중단하였음.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한 주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EU는 2018년 총선을 전후하여 자행된 제1야당 강제 해산, 언론사 폐간 및 인권 탄압 등을 강력 비판, 2019년 2월 EBA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2020년 2월 캄보디아 수출품 일부에 대한 EBA 잠정 중단(6개월 유예조치)을 결정하였음.
- 반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등 봉제산업 경쟁국은 여전히 EBA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2019년 6월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2020년 발효 예상)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한편, 전력 부족<sup>14)</sup>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정치적 이익과 맞물린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주변국 대비 생산성 및 임금경쟁력 열위에 처한 실정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수입국의 경기 둔화로 봉제품에 대한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함.
- 봉제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2020년 월 190달러 수준(2021년은 192달러로 확정)임. 이는 캄보디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등 1지역, 약 190달러)과 유사하며, 경쟁국인 라오스(약 119달러), 방글라데시(약 103달러), 미얀마(약 95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sup>15)</sup>임.

봉제산업 최저임금(월급) 인상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달러)	100	128	140	153	170	182	190	192
인상률(%)	25.0	28.0	9.4	9.3	11.1	7.1	4.4	1.1

자료: 캄보디아 정부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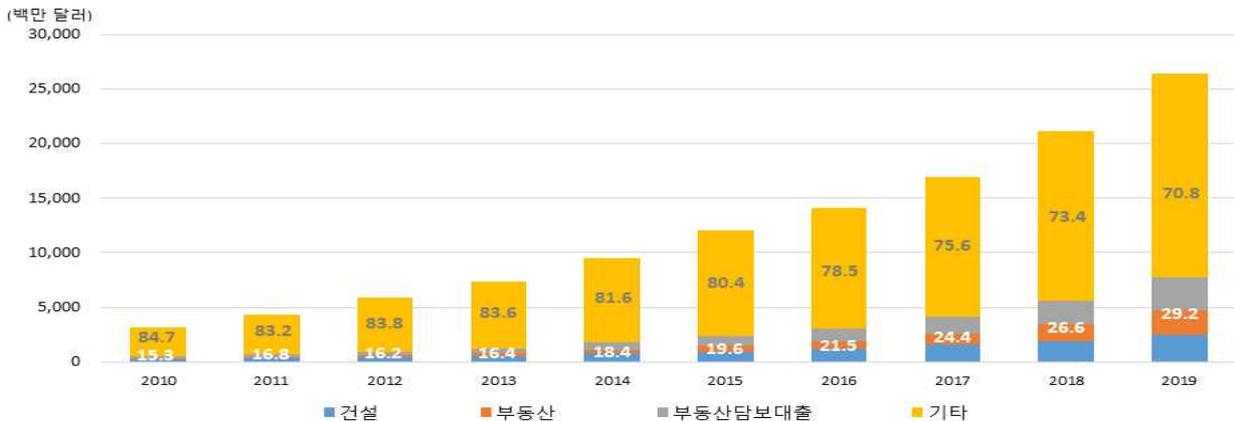
14) JETRO, "2020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계 기업 동향", 2020년 2월. 캄보디아의 전력자급률은 86%에 달하나, 발전설비의 52%(2017년 기준)가 수력 발전설비로 구성되어 가뭄·폭염시 전력공급 중단이 잦음. 2019년 건기(3~5월)에는 프놈펜 180시간, 바벳 특별경제구역 300시간 등 대규모 정전 발생  
15) 각국 정부 발표자료. 베트남(442만동/월), 라오스(110만킵/월), 방글라데시(8,875타카/월), 미얀마(4,800껏/일) 최저임금에 2020년 예상평균환율(EIU) 적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구조적취약성

### 건설·부동산 투자 붐에 따른 금융 부문의 과열 우려

- 평균 8~10%(소액금융기관은 14~19%)의 높은 예대마진, 달러 통용화에 따른 낮은 환리스크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캄보디아 내 금융기관은 2010년 60개에서 2019년 144개<sup>16)</sup>로, 같은 기간 금융기관 총자산은 66.6억 달러에서 510.4억 달러로 7.6배 증가하였음.
-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제고 등으로 민간 부문 여신잔액은 2010년 31.6억 달러에서 2019년 264억 달러로 8.4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26.6%)하였음.
- 급속한 여신 증가 현상은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기인함. 2019년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 유입액은 4.4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0.9%, 2013년(1억 달러)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임. 한편,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여신잔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5.7%씩 증가하여 2019년 7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전체 민간여신 대비 비중도 15.3%에서 29.2%<sup>17)</sup>로 늘어남.

캄보디아의 총여신 및 건설·부동산 부문 앞 여신 지원 추이(2010~2019년)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 금융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이 97.5%까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캄보디아의 금융산업 발달 정도나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편으로 보임. 한편, 민간여신에서 부동산 관련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품 붕괴시 금융시장 연쇄충격이 우려되고 있음.

ASEAN 회원국의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 비교(2019년,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143.3	137.9	120.9	120.8	97.5*	47.6	37.8	35.7	25.7	20.9

자료: World Bank, 필리핀은 2018년, 라오스는 2010년 기준. \* 2010년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은 28.1%

- 관광객 급감, 호화 부동산 초과 공급, 중국 등 주요 투자국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는 부동산 매매·임대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EIU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중 중·고급 주상복합 건물 임대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 5.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16) 캄보디아 중앙은행, "Annual Supervision Report 2019", April 2020. 상업은행 47개, 특수은행 15개, 소액금융기관 82개로 구성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구조적취약성

-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량 실업 및 소득 감소로 개인 담보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sup>18)</sup>.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3개월 간 이자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 연장 또는 채무 리스케줄링을 독려하였음.
- Moody's는 금융감독체계가 규제 정비 속도에 비해 여신잔액 팽창 속도가 빨라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의 과도한 달러 통용화 수준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 등 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성을 강조함.
- IMF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정보 시스템화, 부동산 대출에 대한 높은 위험가중치 부여, LTV 규제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체계 도입, 여신 증가속도 억제 등을 제시하였음.

## 경제 전반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 2011년 EU의 원산지 제한 조항 폐지 이후 봉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의 절반 이상(약 60%)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2013년 일대일로 사업 시작과 함께 중국의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원조자금 지원도 급격히 확대되었음.
-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상품수입국(37.4%)이자 관광수입원(총 관광객의 35.7%)이며, 최대 채권국(공적 외채잔액의 48.7%, 2018년)임.
- 중국은 봉제업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아누크빌 휴양도시 개발,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투자 부문의 약 60%를 담당하면서 최대 투자국(37.7%, 승인 기준)으로 부상하였음.

캄보디아에 대한 연도별/국가별 직접투자 추이(승인 기준,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435.8	543.8	240.6	697.3	1,437.3	2,700.1	1,321.4
홍콩	111.3	93.9	109.2	249.2	85.4	81.6	916.5
영국	84.4	86.8	115.1	35.7	49.0	10.3	821.5
대만	85.2	29.1	46.5	21.1	23.3	33.3	57.7
한국	81.8	65.2	8.5	17.6	149.5	14.6	25.1
총승인액	1,215.6	1,024.4	784.6	1,649.0	2,041.0	3,837.8	3,504.3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이처럼 주요 부문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 둔화시 캄보디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중국 차관은 국제기구의 원조성 자금에 비해 대출만기가 짧은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 저소득국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sup>19)</sup>이 제기되고 있음.

17)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s-Debt Sustainability Analysis", November 2019 및 EIU. 금융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제공현황은 파악·규제가 어려우며, 국내 부동산 가격 관련자료 관리도 미비. 이에 실제 부동산 관련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18) 2017년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일반 소비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상한제(연율 18% 이상 부과 금지)를 도입함.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협회(Cambodian Microfinance Association)에 의하면, 소액금융기관들은 과거 최고 연 40%까지 부과했던 대출금리에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건당 대출규모를 2천 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임. 반면,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43달러(2019년)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9) 국제금융센터, "中 일대일로와 신흥국 부채 리스크 점검", 2020년 5월. 캄보디아, 라오스 등 GDP 대비 對중국 차입금 비중이 높은 8개국 지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성장잠재력

### 젊은 인구구조와 아세안 진출의 거점 역할이 가능한 입지조건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65.2% 수준임. 단,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30.2%)에 달해 향후 수년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잠재적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발달의 핵심 요건으로 기능함.

캄보디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30.2	17.3	41.5	6.4	4.6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20년 추정치)

- 한편, 캄보디아는 신흥 투자처로 부각되는 ASEAN 10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ASEAN 역내외 FTA 및 선진국 무역 특혜 수혜 등에 따른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여 동남아 밸류 체인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좁게는 메콩 강 일대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직결되며, 넓게는 해로를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최근 해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에 단순부품 조립공장 등 노동집약적 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에 확보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 기업 친화적인 투자여건 조성

- 캄보디아 정부는 1994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를 중심으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특별경제구역 지정·운영, 내국인과 동등한 투자·세법 적용(토지 소유 문제 제외), 외국인 출자비율 100% 허용, 경쟁국 대비 낮은 법인세율(20%) 부과, 투자 적격 프로젝트의 관세 및 법인세 면제(최장 9년) 등이 일례임.
- 2018~2019년에는 EU의 EBA 관세혜택 철폐에 따른 수출·영업환경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물류 비용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함.
- 2018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지속 유인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휴일을 기존 28일에서 22일<sup>20)</sup>로 감축 운영기로 결정함.
- 2018년 12월에는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5~20% 인하하기로 하였음. 한편,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6개월 간 제조업·서비스업·상업·농업 등 4개 산업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의 25% 추가 인하를 결정함.

20) EIU. 라오스(9일), 베트남(11일), 말레이시아(통상 14일), 방글라데시(15일), 태국(20일) 등 남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편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성장잠재력

- 2019년 초에는 수출입 통관체계 일원화,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검사 수수료 인하, 對EU·미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폐지 등의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음.
- 특히, 2019년 3월 훈센 총리 주재로 거행된 제18차 민관협력포럼에서는 수출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책이 논의되었는 바, 이후 관세청과 기능중복 기관(CamControl) 폐지, 온라인 VAT 시스템 도입, 세무감사 축소, 중소기업 대상 관세혜택 제공, 프놈펜항·시아누크빌항 등 항만 이용 수수료 인하 등 민간 부문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함.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법 개정안을 준비 중임. 동 투자법은 중국·한국 등 신규 FTA 가시화 시점에 맞추어 발효될 계획으로 금년 중 국회 의결이 예상됨.
- 정부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UNCTAD에 따르면, 2019년 48개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중 캄보디아가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원유 시추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자립 노력

- 캄보디아 정부는 1995년 태국만 연안의 자국 영해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sup>21)</sup>에서 원유 시추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2020년 말부터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자체 전망 중임.
- 원유 시추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업 경험 부족, 국제유가 변동 및 사업 참여 기업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석유 및 가스회사 KrisEnergy가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KrisEnergy는 당초 원유 생산 개시기한을 2020년 6월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본건 시추 작업도 난항을 겪었음. 단, 2020년 8월 말 현재 해상 시추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년 말부터 생산(7,500배럴/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 석유개발사와 관할 당국의 역할 및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한 '석유 및 석유제품 관리법'을 제정하였음. 한편, 중국 자본과의 합작투자로 유전 인근에 정유공장 건설(2021년 생산 시작, 연 20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증산 예정)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1) 해상 유전 6개 블록, 육상 유전 19개 블록 보유. KrisEnergy가 시추 중인 A 블록의 원유 매장량은 3천만 배럴로 예상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정책성과

###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등을 통한 고도 경제성장 추진

- 캄보디아는 2004년 국가 경제·사회 개발 핵심정책인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도입하여 5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4기 전략(Phase IV, 2019~2023년)을 추진 중임.
- 사각전략은 2030년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 2050년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y)<sup>22)</sup>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장, 고용, 형평, 효율”이라는 4대 기치 하에 주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4대 전략목표	4대 전략분야
① [성장] 7% 성장률 유지	① 인적자원 개발 - 교육·과학·기술 개발, 직업훈련 강화, 공중보건·영양상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② [고용]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성장	② 경제 다변화 - 수송·물류 체계 개선, 경제성장동력 발굴, 디지털 경제 구축(산업혁명 4.0), 금융 부문 개발 등
③ [형평] 빈곤율 10% 이하로 축소	③ 민간 부문 개발·고용 촉진 - 고용시장 개발 및 노동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PPP사업 다변화 등
④ [효율] 공공기관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④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농촌 지역 개발, 도시화 촉진, 지하자원 및 관광·문화자원 개발,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자료: 캄보디아 정부,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 Phase IV”, September 2018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5개년 국가전략 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을 병행 중임.
- 동 계획은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 육성, 신용평가사 창설, 기업등록·수출입 절차 간소화, 부동산 관련 여신 감독 강화, 중소기업 창립 지원,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민관협력포럼 확대 운영, 치안 강화 등 사각전략과 연계한 세부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정책 추진에 힘입어 캄보디아는 최근 20년 간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국가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1인당 국민총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에 편입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음. 또한 빈곤율도 2004년 53.2%에서 2018년 12.9%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2) World Bank 소득 분류(2019년 1인당 GNI 기준) : 저소득국(1,035달러 이하), 하위중소득국(1,036~4,045달러), 상위중소득국(4,046~12,535달러), 고소득국(12,536달러 이상)

## 정책성과

###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인해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적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물가 및 환율 안정을 목표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감독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3월에는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및 민간 부문 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을 발표함.
- 현행 달러화 12.5%, 리엘화 8%로 운영 중인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2020년 10월까지 7%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version Buffer) 규제비율(Tier1 자본비율(7.5%) 포함 8.75% → 10.0%) 달성기한을 당초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하였음.
- 또한, 은행간 리엘화 대출상품인 유동성제공담보운영(Liquidity Providing Collateralized Operation) 이율을 만기별로 0.5%씩 인하하여 리엘화표시 대출금을 주로 이용하는 농민들 앞 유동성 공급을 도모함.
- 다만, 타국 대비 높은 수준의 달러 통용화 현상으로 인해 통화주권이나 금융정책의 독립성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 World Bank<sup>23)</sup>는 캄보디아의 경우 재정정책이 거시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이에 재정건전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정치동향

###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으로 정권 안정성 확보

- 2018년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125석 전(全) 석을 차지하였음. 1985년 총리직에 취임한 훈센은 금번 선거에서의 승리로 2023년 까지 총 38년 간 장기집권하게 되었으며, 정권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총선 과정에서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이 강제 해산(후술)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반정부 시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언론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 훈센 총리는 총선 승리 및 통치기반 장악을 위해 야당과 언론을 조직적으로 통제해 왔음.
-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였던 삼랭시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5년 해외로 망명하였으며, 2017년 2월 여당이 CNRP 해체를 목적으로 정당법을 개정<sup>24)</sup>하자 당 해체를 막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였음.
- 삼랭시에 이어 CNRP 대표직을 맡은 켄소카는 2017년 9월 외국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음. 2017년 11월 CNRP도 新 정당법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며, 당 소속 정치인 118명의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었음.
- 한편, 언론 통제도 자행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폐간(캄보디아인 데일리) 및 해외 매각(프놈펜 포스트)을 유도하였으며, 선거를 앞두고 자유언론(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방송 폐쇄 및 소속 직원 감금, 동 프로그램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19개) 강제 폐쇄를 단행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총선은 제1야당 없이 실시되었음. 이러한 총선 과정은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으며, EU와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제재 검토에 착수하였음.
- 한편, 집권여당 내부에 뚜렷한 승계구도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훈센 총리(69세)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 훈센은 장남인 훈마넷(캄보디아 육군 총사령관)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위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CPP는 훈마넷을 당내 청년의원 당수로 선출하였음. 단, 훈마넷의 정권 세습 현실화시 원로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치인·언론인 등 체포 및 방면 반복으로 정치적 혼란 우려

- 2018년 총선 승리 이후에도 정권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반정부 세력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8월 삼랭시는 훈센 정권 타도 및 민주주의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캄보디아 독립기념일(11월 9일)에 맞춰 귀국을 시도하였으나, 정부가 태국, 베트남, 라오스를 포함한 ASEAN 회원국 전체에 체포영장을 발송하고 삼랭시 귀국 즉시 체포를 공언함에 따라 귀국 기도가 좌절되었음.
- 삼랭시 귀국 선언 이후 50명 이상의 前 CNRP 당원들이 체포되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6월 삼랭시가 "토지·주택을 매각하면서까지 채무를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자, 훈센 총리는 CNRP가 국가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前 CNRP 당원의 반정부 활동 색출시 즉각 체포를 공언하였음.

24) '형사기소된 자는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유죄판결 후 90일 이내에 새 대표를 뽑지 않으면 정당의 강제 해산이 가능하다'가 주요 골자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정치동향

- 반면, EU의 EBA 관세 혜택 복원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정치적 위협이 크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각하거나 석방하는 등 '냉온'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2019년 10월 캄보디아 법원은 2017년 간첩혐의로 체포한 Radio Free Asia 직원 2명에 대한 평결(징역 7~15년)을 유보하고 재조사를 명하였음. 또한, CNRP 원내 대표로 활동했던 유력 정치인 손차이를 포함, 10여 명의 전직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9월 캄소카는 보석 석방되어 가택연금에 들어갔으며, 2019년 11월 정치 활동 및 출국 금지 등을 전제로 가택연금이 해제되었음. 2020년 1월 프놈펜 지방법원은 캄소카의 반역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단됨. 한편, 지난 5월 훈센 총리와 캄소카가 비정치적 회합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캄소카에 대한 기소 취하 및 제한적 정치활동 인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동향

### 빈곤 감소 및 복지 개선 추세는 계속되나 주변국 대비 저조

-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2018년 GDP 대비 1% 수준(전 세계 평균 1.6%)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봉제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한 것에 더하여 2018년에는 월 1회 지급하던 임금을 월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퇴직시 지급하던 근속보상금을 매년 일정액씩 선지급 및 2018년 이전에 발생(최대 10년치)한 근속보상금의 소급 지급 등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함.
- 이러한 사회보장 개선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1인당 GNI는 2014년(1,020달러) 최초로 1,000달러를 상회한 이후 연평균 7.7%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9년 1,480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UN의 인간개발지수가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2000년 56.4세에 2018년 69.6세로 늘어났고, 출생아 1,000명당 5세 이하 사망률이 2000년 106.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아울러 15~49세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도 2000년 1.2%에서 2019년 0.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인간개발지수 및 관련지표 개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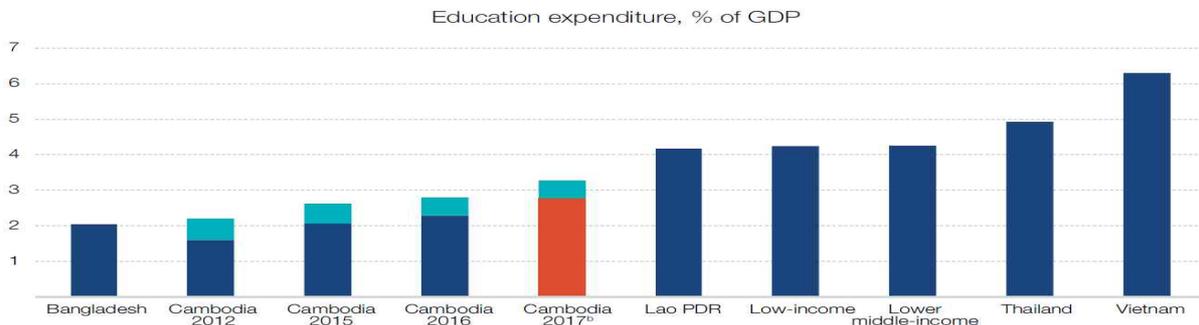
구 분	인간개발지수 (점수/순위)	기대수명(년)	평균교육기간(년)	기대교육기간(년)	1인당 GNI (PPP 기준, 달러)
2000	0.543 (130)	56.4	n.a.	n.a.	1,040
2010	0.494 (124)	62.2	5.8	9.8	1,868
2014	0.555 (143)	68.4	4.4	10.9	2,949
2018	0.581 (146)	69.6	4.8	11.3	3,597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Report 해당연도 자료

## 사회동향

- 단, 동 기간 중 국가별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지속 하락하여 타국 대비 사회복지 수준 발달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ASEAN 국가 중 최하위인 146위로,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도 네팔(147위), 파키스탄(152위), 아프가니스탄(170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교육 부문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교육 부문 공공지출이 2010~2012년 평균 1.6% 수준에서 2017년 2.8%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저소득국 평균(4.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별 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비교(GDP 대비 비중, %)



자료: World Bank,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e in Cambodia", June 2019. 타국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 기준  
\* 남색·적색 부분은 공공지출, 청록색 부분은 국제원조자금에 의한 지출을 의미함.

- 한편, UN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전 세계 공중보건 실태를 점검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보건 시스템 취약국으로 지적하였음.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병상(인구 1만명 당 8대) 및 간호사(인구 1만명 당 10명) 확보 수준은 주변국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비교

**FIGURE 2: PREPAREDNESS DASHBOARD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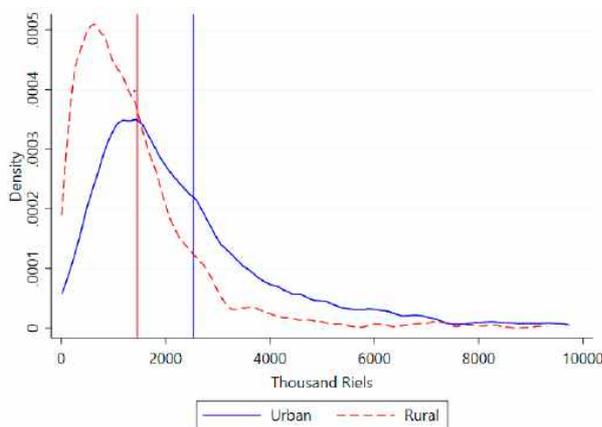
Low to high	Human Development			Health System			Connectivity		
	Human development index (HDI)	Inequality-adjusted HDI (IHDI)	Inequality in HDI	Physicians	Nurses and midwives	Hospital beds	Health expenditure	Mobile phone subscriptions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ndex) 2018	(index) 2018	(percentage) 2018	(per 10,000 people) 2010-2018	(per 10,000 people) 2010-2018	(per 10,000 people) 2010-2018	(% of GDP) 2016	(per 100 people) 2017-2018	(per 100 people) 2017-2018
Singapore	0.935	0.810	13.3	23.1	72	24	4.5	145.7	28.0
Brunei Darussalam	0.845	..	..	17.7	66	27	2.3	131.9	11.5
Malaysia	0.804	..	..	15.1	41	19	3.8	134.5	8.6
Thailand	0.765	0.635	17.0	8.1	30	21	3.7	180.2	13.2
Philippines	0.712	0.582	18.2	12.8	2	10	4.4	110.1	3.7
Indonesia	0.707	0.583	17.5	3.8	21	12	3.1	119.8	3.3
Viet Nam	0.693	0.580	16.3	8.2	14	26	5.7	147.2	13.6
Timor-Leste	0.626	0.450	28.0	7.2	17	59	4.0	103.2	0.0
Lao People's Dem. Rep.	0.604	0.454	24.9	5.0	10	15	2.4	51.9	0.6
Myanmar	0.584	0.448	23.2	8.6	10	9	5.1	113.8	0.2
<b>Cambodia</b>	0.581	0.465	20.1	1.7	10	8	6.1	119.5	1.0

자료: United Nations, "The Impact of COVID-19 on South-East Asia", Jun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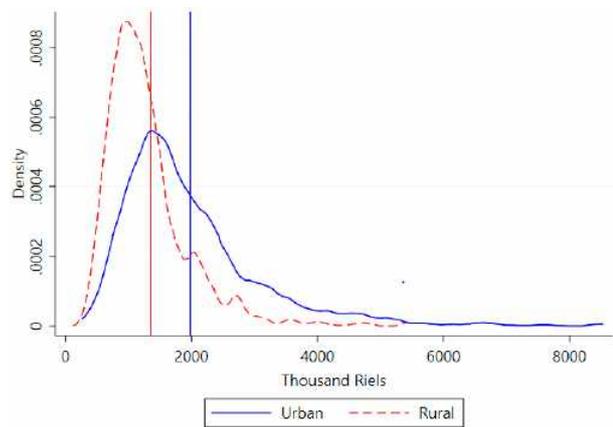
## 사회동향

- IMF 보고서<sup>25)</sup>에 의하면,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농촌 지역의 평균 가계소득 및 소비수준은 도시 지역의 각각 60%,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향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평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도시와 농촌의 월별 소득수준 비교



도시와 농촌의 월별 소비수준 비교



자료: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 국가 비상사태법 의결로 인권 및 언론 탄압 강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사회 통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국가 비상사태법을 의결하였음.
- 정부는 동 법안에 따라 전쟁, 외부의 침략, 공중보건 등에 의한 팬데믹, 기타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 발생시 국왕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이동·집회·외출·여행 제한, 공공·사적 장소 폐쇄, 국가질서를 해치는 정보 유통과 관련한 언론·통신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특히, 위급상황시 계엄령 선포 및 군대 동원이 가능함.
- UN 및 NGO 등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는 동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동 법안에는 일몰조항이 없어,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도 정부가 언론매체 감시, 반정부 세력 탄압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음.
- 실제로 지난 3월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는 SNS 또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유통하거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의문을 표명한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 등 수십여 명을 체포하여 감금 또는 재교육 후 석방하고 있음.

25)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도시 지역의 근로소득(Salary income)이 농촌 지역의 약 2배에 달하며, 자영업 소득도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관계

### 서방 압력 및 무역특혜 축소에 대응한 협력관계 다변화 노력

- 2018년 총선을 기점으로 서방 국가와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캄보디아의 親중국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 수년 간 중국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조자금 수혜 등을 매개로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3천명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거행하는 등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하고 있음.
-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전 세계 최초로 캄보디아 외교 사절이 중국 정부를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협상 시작 후 약 6개월 만인 2020년 7월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음. 동 FTA를 통해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95%는 무관세)을 받게 되며, 도로·병원·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과 농산물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EU 및 미국에 편향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는 2019년 9월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규모를 50억 달러 이상(2019년 30.8억 달러)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와는 2020년 7월 1차, 8~9월 2차 협상을 열고 양국 간 교역품목 확대 및 통관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2012년부터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sup>26)</sup> 협상이 진행되었음.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했으며, 연내 체결이 예상됨.
- 한편, 지난 6월 일본은 교육 및 보건 인프라 개발을 위한 ODA(41백만 달러)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일본 이외에 영국,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호에 대한 서방 국가의 압력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얀마, 헝가리, 터키 등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훈센 총리는 2019년 미얀마(4~5월), 네팔(5월), 헝가리(6월·10월), 터키(7월), 스리랑카(8월)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음. 다만, 이들 국가와의 교역·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만큼, 경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동조세력 확보 측면에서의 외교적 노력으로 분석됨.

### EU, 미국 등 서방 국가와는 민주주의 진전 여부가 선결 과제

- 캄보디아는 EU·미국의 무역 특혜조치에 힘입어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8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언론 및 인권 탄압으로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음.

26) KOTRA,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2019년 11월. RCEP는 전세계 GDP의 32%, 인구의 48%, 교역의 29%에 달하는 규모의 FTA임. 단, 인도는 자국 농업 및 제조업 보호, 중국의 세력 확대 견제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음.

## 국제관계

- EU는 2018년 10월 EBA 특혜 철회 가능성 언급 후 2019년 2월 18개월 간의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 정치적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 캄보디아 수출품 일부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잠정 중단함을 발표하였음. 한편, 2020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부실한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 캄보디아를 포함시켰음.
- 캄보디아는 EBA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30억 달러 규모의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비용 절감책을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법적·경제적 대응을 비교적 빠르게 실시하고 있음. 한편, 일부 정치인 및 언론인 석방 등의 화해 제스처도 취하고 있으나, 집권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EU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민주주의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은 EU의 정치·인권 탄압 비판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아태 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과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협력<sup>27)</sup>을 강화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
- 2019년 2월 미국 상원에서는 캄보디아의 GSP<sup>28)</sup> 수혜 자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동년 7월에는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캄보디아 민주주의법' 초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 12월 前 군부 총사령관 등 요인 13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효됨.
-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한편, EIU는 미국 입장에서는 GSP가 캄보디아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 압력수단인 만큼, 원조 삭감이나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가능해도 무역특혜를 철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언론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EU 등 서방 국가의 압박 또한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가 서방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7) WSJ는 2019년 초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 국경과 접해있는 Ream 해군기지 사용권한(최초 30년, 이후 10년씩 자동 연장)을 중국에 부여했다고 보도

28)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및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미국은 2019년 말 현재 119개국에 GSP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 지속

-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3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1972년의 2건(1월·10월)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5년 1월 채무재조정 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임.
- 1995년 1월의 채무재조정은 1985년 이전의 채무액 총 2.5억 달러에 대한 탕감 및 리스케줄링에 관한 것으로, 비(非)ODA 부분은 2018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ODA 부분 잔액에 대한 상환은 2035년 완료 예정임.
- 2020년 3월 말 기준 캄보디아 앞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은 40.7백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없음. 또한 IMF도 2019년 11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Report에서 캄보디아의 단기적인 외채 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 (2020.09)	D1 (2019.11)
OECD	6등급 (2020.06)	6등급 (2019.06)
Moody's	B2 (2019.10)	B2 (2017.03)

### OECD, Moody's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6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Moody's는 2007년 5월 캄보디아에 최초로 신용등급(B2)을 부여하였으며,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지속 유지 중임.

- 캄보디아 경제는 봉제품 수출, 관광객 증가 및 건설업 활황 등에 힘입어 최근 20년 간 7%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총선으로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언론 탄압으로 EU·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그 결과 봉제품 주요 수출지역인 EU의 무역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타격 및 실업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풍부한 잠재적 노동력과 유리한 입지조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은 안정적인 외채상환 능력 등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주력산업인 봉제산업의 경쟁력 저하, 부동산 붐에 따른 금융시장 과열, 최근의 중국 쓸림 현상 등은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산업구조 및 수출시장 다변화, 서방과의 관계 개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발 노력 등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